

MOVE

MOVE
BY STORY
VOL. 06

20130210

당신을 흥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Mister리를 품은 도시, 영국 런던

여행 친구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던 스토리, 배우 김석훈을 추적한다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놀면서 이기는 탐정 피터리

MUSE

기억 + 추리 = 추억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6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2월 1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예니, 김정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오현걸

사진촬영 김초희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1.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2. 동네서점 팽스북스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한 달에 세 번,
귀로 들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서

TRAVEL

손미나의 여행 사전

미스터리를 품은 도시

영국 런던

UNITED KINGDOM, LONDON

스토리텔러 신민정 — haneul@bombaram.net

짙은 안개, 잦은 비, 떡구름.

동화 같은 유럽의 여느 도시들과는 다르게 런던은 우울한 날씨의 연속이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추리로 우울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듯한 추리 소설은 런던에서 빠질 수 없는 스토리이자 문화가 되었다.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감탄과 부러운 시선으로 보았듯

이제 스토리는 영국의 강력한 자랑거리가 되었다.

셜록 홈즈, 모스 경감, 미스 마플, 푸아로…….

추리 소설 속 가상인물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셰익스피어, 비틀즈만큼이나 영국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런던의 범죄율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런던의 치안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미스터리를 품은 도시, 런던의 다섯 가지 매력을 만나보자.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편집 바닐라시티 성우 정기향 감독 이예걸 대본 윤선에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김초희, 최진주



템스강

런던아이

The Lamb & Flag

차링 크로스 로드

소호

피카딜리 서커스

베이커 스트리트

셜록홈즈 박물관

LONDON



BAKER STREET



런던의 매력포인트 1

221b Baker Street London, UK

스토리가 가진 생명력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대표 소설, <셜록 홈즈>다. 수십 회가 넘게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며 오늘날 누군가의 손에서 홈즈는 재탄생되고 있다. 그러나 코난 도일의 팬, 아니 홈즈의 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허구를 실제로 바꿔 놓았다. 소설 속에서 홈즈가 살았던 '베이커가 221b번지'는 세상에 없는 주소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그에게 팬레터나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를 보내 왔고 지금은 '셜록 홈즈 뮤지엄'으로 이 편지들이 전해지고 있다. 베이커가 239번지 건물주와 런던 시민들이 그곳을 221b번지로 바꾸고 셜록 홈즈의 박물관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상천외한 두뇌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 잡은 홈즈에게 당신은 어떤 사건을 의뢰할 텐가?

런던의 매력포인트 2

셜로키언 / 홈지언

셜록 홈즈 마니아를 지칭하는 뜻으로, 셜로키언은 미국식 표현이고 홈지언이 영국식 표현이다. 이들을 파이프 담배와 지팡이, 레인코트 차림으로 코스프레나 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들은 홈즈를 실존인물이라 생각하며 홈즈의 개인사와 삶을 재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셜로키언 혹은 홈지언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다. 셜록 홈즈 협회(Sherlock Homes Society of London)는 영국의 대표 클럽으로 셜록 홈즈 저널(SHJ)이라는 회지를 발행하며 연례 모임을 열어 정기적으로 라이헨바흐 답사를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뉴욕의 가장 오래된 셜록 클럽, 베이커가 유격대(Baker Street Irregulars: BSI)는 트루먼과 루즈벨트 대통령도 명예 회원일 정도로 유서 깊은 클럽이다.





@illickr_contagiousmemes

런던의 매력포인트 3

희대의 살인마,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는 1888년 런던 화이트채플 주변에서 최소 다섯 명이 넘는 매춘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다. 범인이 사용한 듯한 가죽 앞치마, 반 토막 난 희생자의 신장, 그리고 경찰서로 배달된 편지가 유일한 단서다. 물론 이조차도 가짜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 뚜렷한 실체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는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살았던 시대로, 훔즈나 왓슨 박사의 실존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잭 더 리퍼'는 영국에서 연쇄 살인마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수백 편의 픽션으로 만들어져 국내에서도 영화, 뮤지컬 등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런던의 매력포인트 4

추리물 전문 서점 머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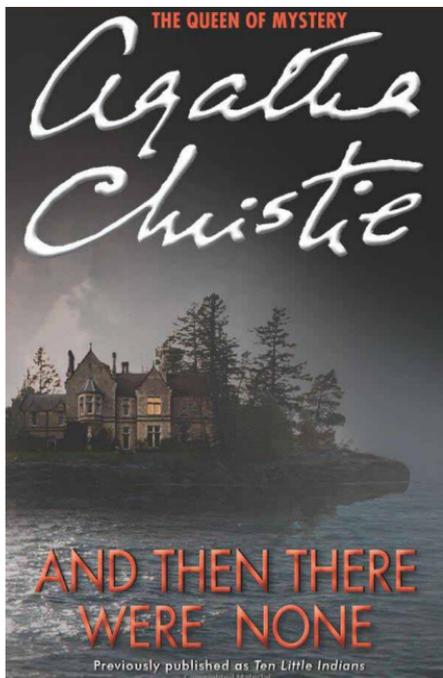
외국에는 하나의 테마를 주제로 하는 서점이 많다. 런던의 추리물 전문 서점 머더원 서점(Murder One Bookshop)도 그 중 하나다. 이곳은 영국의 첫 번째 추리물 전문 서점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전문 서점이기도 하다. 20여 년간 런던의 차링 크로스로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2009년 1월 경영 압박으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현재는 이 서점에서 14년간 근무한 매니저가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머더원 서점은 현재는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www.murderone.co.uk



추리 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10대 때 오페라 가수의 꿈을 가졌던 그녀가 어쩌다 현시대 최고의 추리 소설가가 되었을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한 것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첫 번째 습작 소설 배경인 이집트 여행이었다고. 이후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을 발표하며 추리 소설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작을 탄생케 한 또 하나의 여행이 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여행. 여기서 고고학자인 두 번째 남편을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오리엔트 특급살인>, <메소포타미아의 살인>, <나일강의 죽음> 등을 썼다. 추리 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녀의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녀에게 통찰력을 준 '여행'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새로운 꿈을 꾸는 당신이라면 아가사 크리스티를 본보기 삼아 지금 당장 떠나보시길.



아가사 크리스티의 대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표지

여행 친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던 스토리 배우 김석훈을 추적하다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런던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리 소설이 있다면, 손여사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담으로 유쾌한 여행친구가 있다. <소미나의 여행사건> 여섯 번째 여행친구, 클래식 라디오 DJ로도 활약 중인 배우 김석훈 씨다. 런던은 그에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다. 인생에 큰 절망(?)과 삶의 전환점을 안겨준 곳까지. 배우 김석훈, 그에게 런던은 어떤 곳일까?

Q.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외국에 나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좋아한다.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공감할 언저리 못하겠지만, 배우들은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보통 재충전을 한다. 작품 안에 몰두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재충전으로 여행지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중 런던은 다섯 번 정도 갔다.

Q. 다섯 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런던이 좋은 이유?

무엇이든 마친가치겠지만,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다. 대학생 때 처음으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옆 좌석에 영국신사가 앉았는데, 계속 날 힐끔거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마도 동양인 학생이 자기 나라 여행서를 보면서 밑줄 긋고 별표를 치는 모습이 귀여웠나 보다. 비행기가 런던 땅에 착륙하는 순간, 나에게 두 팔을 짚 펼쳐며 "Welcome to England!"라고 인사했다. 제대하고 생애 처음으로 간 2달 여간의 유럽 배낭여행 중 한 달 동안만 런던에서만 머물렀을 정도로 첫 외국여행의 시작이 매우 좋았다.

Q. 런던에서 공연을 보면서 인생 진로가 바뀌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우선 청취자들은 동기부여에 대한 일화를 기대할 텐데, 미리 말하자면 나의 '절망'에 관한 이야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으로 승화된 내 진로'에 관한 이야기다. 원래 나의 꿈은 뮤지컬 배우였다. 그래서 런던 여행의 목적은 공연 관람이었다. 세뱃돈을 탈탈 모아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 웬만한 유명 뮤지컬을 다 봤다. 그것도 꽤 비싼 자리를 구매해 배우들의 연기를 하나하나 봤다. 그렇게 유명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 작품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다 못해 나락으로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도 조각났다.

Q. 어떤 작품으로 꿈이 바뀌게 됐는지?

내 꿈을 바꾼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다. 런던 여행경비가 떨어져 갈 때쯤, 간신히 티켓을 사서 공연이다. 배우들 정수리만 보이는 공연장의 끝 자리에도 <레미제라블>은 나에게 전율을 줬고, 절망을 줬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워낙 큰 신이라 오를 순 없겠다



고 생각했다. 포기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해지는 기분일까. 그렇게 돌아와 복학하고 나서는 뮤지컬에 대한 꿈을 정리하고 정통 연기만 바라봤다. 아직도 <레미제라블> 공연을 보고 나온 런던의 그 밤거리를 술에 취해서 걸어가던 듯한 느낌이 생생하다.

Q. 김석훈이 말하는 런던의 매력 포인트는?

그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파악하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정수는 단연 '공연'이다. 대형 뮤지컬에서부터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원어로 하는 연극까지 다양하게 보길 추천한다. 공연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공연 정보를 잘 알려주는 <Time out>이라는 공연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좋을 듯.

Q. '런던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만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런던에서는 택시를 타면 안 된다.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타게 되면 중간에 내려야 한다. 보도가 잘 되어 있으니 걷거나,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고, 지나가다

택시를 발견하게 되면 예쁘니까 사진만 찍기를.

Q. 마지막으로 '꼭 해보길' 추천하는 것은?

영국에 가면 꼭 타보는 게 이층버스다. 이왕 버스를 탄다면 이층 버스 맨 앞자리를 권한다. 이 자리가 명당이다.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일반 버스를 타는 것과 같다. 이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런던을 흠뻑 만끽하길.

배우 김석훈의 고리에 꼬리를 무는 더 많은 이야기는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피터팬 피터리 영원히 철들지 않는 피터팬 놀면서 이기는 탐정 피터리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노력 금지! 재미 없으면 지는 거대! 철들면 지는 거대!

이것은 놀공발전소(nolgong.com) 잠재력 담당 1호기 피터리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피터리는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뉴욕에서 에릭 짐머만(Eric Zimmerman)과 함께 게임회사 '게임랩(gameLab)'을 창업해 운영했고, 2006년 세계 최초로 빅게임 페스티벌(Come Out & Play Festival)을 열어 뉴욕시의 일상 공간을 놀이터로 만들었던 상징적 인물이다. 이뿐인가? 2009년에는 미국에서 비영리 게임연구소(Institute of Play)를 설립, 디지털 세대를 위한 '게임 같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뉴욕시 인가 공립 학교(Quest To Learn)를 개교했다. 그런 피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 놀이로 교육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20년만에 귀국, 홍대앞에 놀공발전소를 설립하고 '놀력충만' 동지들과 오늘도 놀 궁리를 하며 철없이 살고 있다.

그렇다, 피터리는 영원히 철들지 않는 영혼이다. 그래서 다투어도 '피터팬'이다. "어려서부터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학습되고 강요된 삶의 틀에 맞춰 모두 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싫었죠. 제가 접했던 첫 고전이 카뮈의 <이방인>이었는데, 큰 감동을 받아서 자주 읽었어요, 사회적 억압 없이 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추구하고 마음껏 실현하는 인생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40평생 '남의 말 안 듣기' 신공을 연마해온 피터리 달인의 회사 운영방식 또한 남다르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형적 조언을

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라는 오기가 발동했고, 그의 '생각'은 놀공에서 '현실'이 되었다. '철 없음'이 '치기가 아닌' '용기'가 되고, 다른 것과 투쟁하기보다 좋아하는 것과 사심 없이 연대하며 신나는 판을 만들고, 각자의 취향과 능력이 위계 없이 절묘하게 만나 '노력'하지 않고 '몰입'하며 '참조'하는 것이 놀공의 일상이다. 피터리가 철없다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처럼 성실하고 진지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놀공은 게임회사다. 그런데 놀공이 만드는 게임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몸으로 참여하고 생생하게 감정을 나누면서 일상의 공간을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게임판으로 바꿔버리는 이른바 '빅게임'이다. 놀공의 게임은 한 편의 '추리소설'이 되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탐정'이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사소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순수한 감각으로 단서를 찾아가는 '추리'와 '게임'은 아주 많이 닮았어요.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살아나면서 자기중심적 몰입의 상태(매직써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조건 없이 공평하게 만나 서로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감정을 공유하며 무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게임의 미덕."이라는 것이다.

피터리가 좋아하는 오후 네 시의 겨울 햇살이 스며든 나무 탁자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놀공 식구들은 거침없이 뜨거웠고, 자유롭게 사무실을 오가며 '함께' 일하고 있었다. 사소한 것에 섬세하게 감동하고 좋고 싫음을 투명하게 표현하며 아집 없이 공감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노인이 되어서도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피터리, 그의 철없는 마음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 그는 놀면서 이기는 명탐정이다.

피터팬이 제안하는 무브꺼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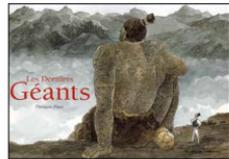
1. 힘들거나 의지가 꺾일 때 '소년만화' 보기

만화책 보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취미다. 첫 만화책이었던 <도라에몽>부터 (나루토), (원피스), (드래곤볼), (킹덤) 등의 만화 속 인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과 연대하며 같이 무언가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소년만화는 그에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일종의 '자기계발서' 역할을 한다. 아, 최근 성인만화 중에선 심야식당 작가의 <아마모토 귀 따주는 가게>를 추천한다.



2. 주변 사람들에게 그림책과 손 편지 선물하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낀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 그 사람에게 절실한 메시지가 담긴 그림책을 손 편지와 함께 선물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깊어지고 그 사람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 매우 기쁘다.



3. 물건이든 사람이든 좋으면 좋다고 충분히 표현하기

처음 만나서도 좋은 사람에겐 좋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가령 목진요 작가가 그런 경우인데, 허물 없이 속사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 지금에 와서야 목작가로부터 "너의 성격 취향이 남다른 줄 알았다"는 농담 섞인 고백을 들었을 정도(피터리는 아빠다. 물론 찡없는~). 그리고 예쁜 것 사는 것을 좋아한다. 필기구나 캔버스 가방 같은 것. 그림책도 그 중 하나다.



4. 미지의 골목과 계단을 만나면 일단 탐험하기

호기심이 많아서 '안 가본 길'로 접어드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낮은 골목과 계단을 만나면 무조건 들어가 본다. 특별한 목적 없이 미지의 길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매우 신선한 에너지를 준다. 마치 탐정이 추리하면서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즐거움이라고나 할까?

5. '놀력충만'한 동지들과 게임 만들기

게임을 만들 때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순수한 개인이 되어 협업하게 된다. 가장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진면목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함께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도 생각과 느낌은 각자 다른 데 가있어 결도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을 만들 때 만큼은 각자 철저하게 주체적인 자기가 되면서도 감정을 온전히 공유한다. 모두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MUSE

기억 + 추리 = 추억

스토리텔러 김정혜 — puri@bombaram.net

치명적인 것은 가장 나중에 밝혀진다는 것. 누구나 자신의 기억이 진짜라고 주장한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

어느 한 쪽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추억과 추리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추억을 추리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1 기억과 추억

시간은 뒷걸음질을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움직이고, 절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 때문에 누구도 시간을 앞지를 수 없다. 영원히 시간의 뒤통수를 쫓을 수밖에. 어쩌면 기억은 시간이 인간에게 배운 유일한 관용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부산물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주워담으며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 모자라 머릿속에서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을 되새김질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추억이라는 형태로 변신을 꾀한다. 기억은 머릿속에 저장되지 만 추억은 가슴에 새겨진다. 따라서 기억이 추억으로 변하는 과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2 추억이 되는 기억의 조건, 추리

기억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시간도 이야기도 정지된 상태에 가깝다. 기억에 따라 냉동고에 보관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음식처럼 묵혀지기도 하고, 냉장고에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먹는 물처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쉬이 지나치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꺼내어진 기억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면서 정지되었던 시간과 이야기를 서서히 되살린다. 특히 눈과 코와 귀와 입이라는 관문을 거치면서 기억은 급격히 추억으로 변하는데, 이때 '추리'라는 화학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눈과 코로 수집하는 증거

기억은 눈을 통해서 재현된다. 만약, 사진이라는 박제된 기억이 있다면 재현은 더욱 생생해질 수 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배경은 어디였는지,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물론, 그때 나를 살짝 스치고 간 바람의 세기와 태양을 품고 있던 하늘의 분위기까지 촘촘히 추리해내고 나면 기억은 추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다. 숨 쉬는 공기를 타고 몸 속에 침투하는 향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항력에 가깝다. 따라서 코를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기억을 잇고자 마음먹었던 인간의 의지를 간단히 허물고 만다. 길을 걷다 우연히 알게 된 옛 사랑의 체취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오래된 옷에서 묻어나는 친숙한 부모님의 냄새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처럼. 코는 향기를 기억과 만나게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무의식의 영역까지 추리를 끌어온다.



#4 귀와 입을 통한 해석

귀와 입을 거치면서 기억은 본격적으로 추리의 궤도에 오른다. 귀를 이용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하고, 탐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또한, 입으로는 기억을 반복해서 말하며 스스로 삭제와 과장을 반복한다. 마침내 눈과 코로 추리한 단서를 귀와 입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석해 내고 나면 기억은 추억으로의 변신을 완료한다. 이제 남은 일은? 버리고 싶은 사실은 살짝 지워버리고, 간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부풀리고, 추한 것은 아름답게 바꾸었다는 알리바이와 함께 추억을 꼴딱! 삼키는 일이다. 이렇게 삼켜진 추억은 몸 구석구석을 돌고 돌아 결국 가슴에 터를 잡는다.

#5 추억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결국 인간은 시간을 상대로 기억을 제멋대로 추억으로 변질시키는 범죄를 반복해 온 상습범이 아닐까. 기억을 떠올릴 때는 머리를 움켜쥐고, 추억을 떠올릴 때는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기억이 추억으로 바뀔 때 꾸며낸 거짓된 알리바이가 들끓는 것이 두려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일지도. 당신에게 묻는다. 추억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그 추억을 만들어 낸 당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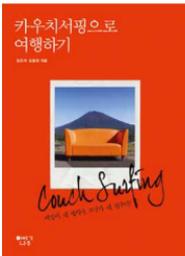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